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9년 2월 4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가족 얼음썰매장’ 등 겨울철 놀이공간 운영을”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겨울철 어린이놀이를 위해 북서울꿈의숲에 ‘가족 얼음썰매장’ 등의 겨울철 놀이공간 운영’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겨울철 어린이놀이를 위해 지역 내 가능한 곳에 ‘얼음썰매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특히 지난해인 2018년 1월경, 북지건설위원회 파인트리 공사장 옆 백운천 하천정비공사 현장활동을 하면서 자연결빙 얼음썰매장 설치 의향을 안전치수와 장에게 제안했으나 여름철 장마로 인해 하천바닥이 유실되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구 의원은 강북구민을 포함하여 동북부서울시민의 여름철 문화여가공간으로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는 ‘축구장 바캉스’를 북서울꿈의숲 여름 물놀이장에 이어 겨울철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얼음썰매장’, 더 나아가서는 ‘가족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등을 기후조건



및 예산을 감안하여 겨울철 놀이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북구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실례로 10년 전, 북서울꿈의숲 개장 초기에 몇 년 동안 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한 바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구본승 의원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추진이 어렵다면 서울시가 북서울꿈의숲 공간을 제공하고 강북구에서 ‘가족 얼음썰매장’을 포함하여 알맞은 겨울철 놀이공간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서 올 겨울에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등 겨울철 놀이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서초구, 중랑구 등의 사례를 살펴서 이같은 제안에 대하여 서면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동북일보 5면

북서울꿈의숲에 겨울철 놀이 공간 제안

구 본 승 의원

(무소속/번3동·송중동·미아동)

구본승 의원은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겨울철 어린이놀이를 위해 북서울꿈의숲에 ‘가족 얼음썰매장’ 등의 겨울철 놀이 공간 운영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2019년에는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문제로 인해 축구장 바캉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북서울꿈의숲에서 시 주관으로 물놀이장이 설치·운영된다.’는 소식을 확인하였으며, 강북구민을 포함하여 동북부서울시민의 여름철 문화여가공간으로 좋은



▲ 구본승 의원.

사업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10년 전, 북서울꿈의숲 개장 초기에 몇 년 동안 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한 바 있다면서, 북서울꿈의

숲 여름 물놀이장에 이어 겨울철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얼음썰매장’, 더 나아가서는 ‘가족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등을 기후조건 및 예산을 감안하여 겨울철 놀이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북구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추진이 어렵다면, 올 겨울에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등 겨울철 놀이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서초구, 중랑구 등의 사례를 살펴서 서울시가 북서울꿈의숲 공간을 제공하고 강북구에서 ‘가족 얼음썰매장’을 포함하여 알맞은 겨울철 놀이 공간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5분 자유발언〉

북서울꿈의숲에 ‘얼음썰매장’ 어떨까?

구본승 구의원, 겨울철 가족놀이 공간 제안

울 여름 북서울꿈의숲에 서울시가 물놀이장을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공간을 겨울철 가족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여름휴가철 가족들을 위한 ‘축구장 바캉스’도 제안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지난해 파인트리 공사장 옆 백운천을 ‘자연결빙 얼음썰매장’으로 제안했지만 하천바닥이 유실 돼 어렵게 됐다.

구 의원은 “북서울꿈의숲 여름 물놀이장을 겨울철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

께 즐길수 있는 ‘가족 얼음썰매장’이나 ‘가족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등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며 강북구가 서울시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실례로 서울시는 10여년 전 북서울꿈의숲 개장 초기 몇 년간 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을 운영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이 어렵다면 서울시가 북서울꿈의숲 공간을 제공하고 강북구에서 알맞은 겨울철 놀이 공간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서울포스트신문 4면

강북구의회 구본승의원 5분 자유발언

북서울꿈의숲에 겨울철 놀이공간 운영 제안



지난 1월 2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정동, 민3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겨울철 어린이 놀이’를 위해 북서울 꿈의 숲에 가족 얼음썰매장 등 겨울철 놀이공간 운영에 대해 제안했다.

구본승 의원은 먼저 “본 의원과 김도연 안의원의 제안으로 여름휴가철 가족여가를 위해 ‘축구장 바캉스’가 2018년까지 2회 개최되었다”고 밝히고 “축구장 바캉스의 제안으로 겨울철 어린이놀이를 위해 지어 내 가능한 곳에 ‘얼음썰매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018년 1월경, 북운천 하천정비공사 현장활동을 하면서 ‘이곳에 자연결빙 얼음썰매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전지수과장에게 제

언하였더니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이었던 나 작년 12월 예산상이라 폐, 신규사업으로 제출되지 않아 확인하였더니 ‘여름철 장마로 인해 하천바닥이 유실되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어 “2019년에는 구민운동장 안조간다 문제로 인해 축구장 바캉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북서울꿈의숲에서 시주관으로 물놀이장이 설치 운영된다.”는 소식에 여름 물놀이장에 이어 겨울철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얼음썰매장’, 더 나아가서는 ‘가족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등을 기후조건 및 예산을 감안하여 겨울철 놀이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북구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의원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추진이 어렵다면 서울시가 북서울꿈의숲 공간을 제공하고 강북구에서 ‘가족 얼음썰매장’을 포함하여 알맞은 겨울철 놀이공간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주차난 해소 소규모 평면주차장 건설 대비 구비 예산확보' 제기!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무소속/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제

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지난달 23일에 개최된 건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 구정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평면주차장 건설을 대비해 구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제기했다.

그동안 다수 추진해 온 대규모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여러 절차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마을의

노후주택을 협의, 매수하여 소규모 평면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고 검토됐다.

이와 관련 2018년 9월 5일자로,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소규모 평면식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여러 개소의 대상지를 통합하여 추진이 가능하고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에 강북구는 2019년에는 사업가능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투자심사 포함한 시비를 요청한 후 가능한 대상지를 협의, 매수하여 공사를 시행

할 계획이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2019년~2023년)에는 인수동, 삼양동, 수유3동,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과 예산이 반영됐는데, 소규모 평면주차장 건립 계획과 구 부담률(40%)에 해당하는 구비 예산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고 계획된 동별 공영주차장과 소규모 평면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올해 추경예산부터 주차장 건설 구비 예산 편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